

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 시행땐 광주年 7만대 감산 경쟁력 하락

"매출 감소땐 협력사 타격 등 지역경제 악영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간 임금 협상의 결렬들이 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끝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지난 2005년 노사협약에서 합의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자는 큰 틀에서는 노사가 이미 합의한 만큼 노조는 이 합의사항을 지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행 주·야간 2교대제(주·야 10시간+10시간)로 이뤄지는 근무시간을 주간에만 연속으로 2교대제(주간 8시간+8시간)로 근무하자는 것으로, 주간조 오전반이 오전 7시4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오후반이 오후 4시20분부터 새벽 1시까지만 근무하자는 것이다.

사측도 근로조건 개선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야 근무 시간 및 노동시간을 단축,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시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광주공장의 경우 근무시간이 4시간 줄어들게 되면 연간 생산량이 36만대에서 29만대로 7만대(19%) 가 감소하고 이는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노조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사의 지난 2005년 합의안도 '임금 및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인력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 노사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따라서 회사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행되더라도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생산 손실은 없어야 한다는 논리다. 사측은 이에 따라 ▲9+9, 8+10, 8+9 등 근무 형태에 대한 종합적 검토 ▲현류 생산 등을 통한 유연한 UPH(시간당 생산수) 조정 ▲작업 시간의 추가 확보 ▲맞교대 시 예상되는 훈련 최소화 및 여유시간 확보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기아차의 매출 감소는 세계 시장에서 기아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

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2007년 광주지역 총생산액의 26.3%(5조1천억원)를 차지하고 광주 전체 수출규모의 30.6%(31억달러), 지역 협력사 부품구입액의 36%(1조2천억원)를 도맡고 있다

는 점에서 매출 감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근로시간은 주는데 월급제로 전환하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노조측 입장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세계 자동차업체가 위기 상황인 만큼 노사가 매출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中소지원 업무 협약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호석)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충식)은 8일 오전 광주상의 3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상담과 현장 클리닉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광주도시공사 등 2곳

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8일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광주시도시공사와 전남 개발공사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 시도시공사는 용역을 맡기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공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지방계 약법령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 계약이행 보증기간, 하자보수 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장필수기자 bungy@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할인행사땐 부담만 안겨

백화점 입점업체들 "우리가 봉이죠"

중기중앙회 120여곳 조사... "횡포 찾다" 불만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입점업체 1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가 백화점에 납부해야 하는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8%로, 입점업체의 87.6%가 지나치게 높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패션잡화(32.7%)와 의류(32.1%) 부문의 수수료가 높았다.

또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하면 가격 할인부담은 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

지만 할인율 10%당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1%p가량 감소하는데 그쳐 할인 행사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업체들은 또 작년 한 해 동안 업체당 평균 15.7회 특판행사 참여를 강요받아 1천789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패션잡화와 의류 업체 각각 95.0%, 91.7%가 해외브랜드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

했다. 국내브랜드의 매장을 구석진 위치로 배치하는 것과 반등비율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예도 많았다. 인데리어 변경과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했다.

/이은기자 em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경제 돋보기

단일 지주회사 전환 금호그룹 주가는

지주회사 금호석화 '뜨거운 감자'

형제간 지분경쟁땐 단기 급등 가능성도

■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구도

성명	보통주	
	주식수	비율(%)
박진구	2,333,462	9.18
박준경	2,292,820	9.02
소계	4,626,282	18.20
박삼구	1,346,512	5.30
박세창	1,644,340	6.47
소계	2,990,852	11.76
박철완	2,990,852	11.76
박재영	1,182,050	4.65
금호문화재단	55,000	0.22
금호석유화학(자사주)	5,592,528	22.00
합계	17,437,564	68.59

양대 지주회사에서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가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과 금호산업. 특히 금호산업과 함께 상두마차 체제를 유지해오다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금호석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단일 지주회사 체제 선언후 처음으로 열린 8일 주식 시장에서 두 회사의 주가는 회비가 엇갈렸다. 보합으로 출발한 금호석화 주가는 9.84% 하락한 반면 하락 출발한 금호산업은 장중 8.42%까지 급등했다가 결국 3.30% 상승한채 거래를 마쳤다. 최근 금호석화는 지분경쟁으로 급등한 반면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주가 변동성 더욱 커져

개인 투자자 신중해야

롯데온 문제로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주가는 조정과 반등의 의미도 있지만 주가 향방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증권가에서는 단연 금호석화에 대한 주가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룹 오너간 지분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그룹 전체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최근 금호석화 지분을 놓고 박삼구 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회장부문 회장이 벌이는 매입 경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룹측 주장대로 지분매입 이유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경우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적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분매입 배경이 시장의 의구심대로 형제간 계열분리나 경영권 분쟁에 있다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배까지 폭등했던 낭금토건 사례에서 보듯이 주주간 지분분쟁이 본격화되면 적정 주가를 넘어서는 급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안상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룹내 주식의원인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지분확대 경쟁이 벌어진다면 주가에는 단기 모멘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그룹이 단일 지주구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순 지분취득이라면 주가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삼구·찬구 회장간 지분경쟁을 주의깊게 지켜본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지분경쟁이 쉽게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고 주가 변동성도 커질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산 농축산물 제값 받는다

원산지 표시 후... 쇠고기 등 수입산과 가격차 더 벌어져

1.5%, 닭고기는 -34.5%, 쌀은 -75.5%, 배추김치는 -66.7% 수입량이 줄었다. /연합뉴스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클럽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오피스텔 대표이사 010-7570-7525